

사랑가 | 판소리 「춘향가」 중에서

판소리의 구성을 이해하고 중중모리장단에 맞추어 노래 부를 수 있다.



이유나 채보

중중모리장단

이 리 오 너 라 업 고 놀 자 으이! 좋다!

이 리 오 너 라 업 고 놀 자 사 랑 사 랑 사 랑 내 사 랑 이 야

사 랑 이 로 구 나 내 사 랑 이 야 이 이 이 이 이 이 내 사 랑 이 로 다

아 - 아 - 마 도 내 사 랑 아 네 가 무 엇 을 먹 - 으 려 느 냐

똥 글 - 똥 글 수 박 옷 봉 지 떼 뜨 리 고 강 룡 백 청 을 다 르 르 르 르 부 - 어

썰 랑 - 발 라 버 리 고 붉 은 점 움 폭 떠 반 간 진 수 로 먹 - 으 려 느 냐

아 니 그 것 도 나 는 - 싫 소 저 - 리 가 거 라 뒷 태 를 보 자 이

- 리 오 너 라 앞 태 를 보 자 아 장 아 장 걸 어 라 걸 는 태 를 - 보 자 -

방 곳 웃 - 어 - - 라 잇 속 을 - 보 자 아 - 아 - 마 도 내 사 랑 아 잘한다!

이 노래는 판소리 「춘향가」 중 '사랑가'로, 춘향과 이도령이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표현한 대목이다.



1 중중모리 북장단에 맞추어 노래 불러 보자.

• 소리북 알아보기



부호	구음	연주법
⊖	합	왼손은 손바닥으로 북편을, 오른손은 북채로 채편을 동시에 친다.
○	궁	왼손 손바닥으로 북편을 친다.
	따	오른손에 북채를 들고 북의 테두리(매화점)를 친다.
⊗	척	왼손 손바닥으로 북편을 막고, 오른손 북채로 북의 가운데(온각점)를 친다.

• 중중모리장단

이	리	오	너	라	업	고	놀	자	
⊖		○			○	○	⊗	○	○

2 친구가 부르는 '사랑가'에 맞추어 추임새를 넣어 보자.

추임새 판소리를 할 때 고수와 관객이 흥을 돋우기 위해 장단에 맞추어 내는 소리



판소리의 3요소

- 소리: 장단에 맞추어 노래 부르는 것
- 아니리: 소리 사이에 설명하듯이 말하는 것
- 발림: 소리하면서 하는 몸짓 또는 표현

3 노랫말에 발림을 넣어 표현해 보자.

• 발림

판소리 창자가 신체를 활용한 몸짓 또는 표정이나 소도구인 부채로 극적인 상황을 실감 나게 그려 내는 동작



부채 잡기

업기

• 부채의 역할

부채는 소리꾼의 '제2의 손' 역할을 하는 신체적 도구이다.

- 감정 표현 예시**
 - 슬플 때 부채를 접는다.
 - 부끄러울 때 부채로 얼굴을 가린다.
 - 불안할 때 부채를 빠르게 접었다 폈다 한다.
- 소품 표현 예시**
 - 이야기를 전하는 편지, 심봉사의 지팡이, 흥부의 박을 타는 톱, 제비 등